

# 2024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11.26.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6	1	15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4	-	1	14	-	14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4	-	-	14

### 다. 전월(10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앵커의 리포트> 뉴스 앵커가 취재기자 역할까지 하는 걸 보고 놀랐는데 애쓰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대전, 세종, 충남의 갈등 구조에 대해 다 파할 수 있는 방향성을 앵커가 제시해 보자는 의도로 시작했는데 부정적이라도 계속 참여하도록 하겠음 <24. 11월 조치>	'24.10월
보도	<시민 인터뷰 관련> 지역 축제나 지역 행사 보도시 정치인보다는 시민이나 주민들의 인터뷰를 넣었으면 함	시민 인터뷰가 부족하다는 평에 공감하고 앞으로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음<24. 11월 조치>	'24.10월
보도	<따뜻하고 밝은 보도> 좋지 않은 뉴스도 보도해야 하지만 아름답고 따뜻한 뉴스도 많이 내보내 주었으면 함.	앞으로 보도 방향을 나쁜 뉴스만을 보도하기 보다는 나쁨의 현상이나 사람 등 착한 영향력을 알리는 뉴스도 다루도록 노력하겠음 <24. 11월 조치>	'24.10월
교양	<도론 패널 참여자> 지역 현안을 다룰 때는 예산이나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패널을 섭외해 주었으면 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섭외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무게감 있는 패널을 섭외하도록 노력하겠음 <24. 11월 조치>	'24.10월
교양	<시시각각의 방향성> 개론적인 내용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현실적인 피해 내용을 실제로 담아주었으면 함	거시적인 이슈에 대해 우리 지역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겠음 <24. 11월 조치>	'24.10월
교양	<MBC 소년소녀합창단 노래> KBS의 경우 좋지 않은 뉴스가 끝나고 나면 경치, 전시회, 클래식 등 편안한 내용이 나오는데 MBC도 소년소녀합창단 음악을 방송했으면 함	다음 달부터 입상한 10곡을 20초,30초 분량으로 캠페인으로 제작해서 방송할 예정임 <24. 11월 조치>	'24.10월
교양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대체적으로 기승전결을 잘 잡고 있고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부정적인 부분만 다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처음 다룬 것 같아 좋았음	11월에 4편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미와 감동, 인간미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음 <24. 11월 조치>	'24.10월
교양	<철도 르네상스 다큐> 일본의 철도를 다루면서 대륙 진출이라는 철도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언급과 민영화에 대한 내용도 다뤄주었으면 좋았을 것	일본 철도 발전의 군사적 의도를 놓친 부분을 잘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놓치지 않겠음 <24. 11월 조치>	'24.10월
기타 (시청자게시판)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즐거운 오후2시 선곡표 문의 관련해서 10월24일과 10월20일 어느 날을 말하는 건지?	10월 20일에 게시된 내용으로 24일은 도래하지 않아서 재질문 후에 20일 선곡표라고 해서 답변을 받아서 놓치지 않겠음 <24. 10월 조치>	'24.10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11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시의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시의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천변고속화도로 관련 보도> 민자 사업 관련해서 무리한 수익보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후속 보도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유기권 입양 캠페인 보도> 유기권 입양 캠페인을 시청했는데 이 캠페인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보도	<대전교도소 재소자 폭행 관련 보도> 재소자나 범죄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왜곡 평가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후속 보도로 다루면 좋을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보도	<미당 뉴스 관련 보도> 1주일 동안 뉴스를 분석했는데 전체 78개 중에 좋은 뉴스는 7개 밖에 없음. 미당을 전하는 코너를 고정화하면 좋을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청소년 도박 관련 보도> 학생들이 도박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폭력과 연결되는 심각한 상황을 봤는데 후속보도해 주면 좋을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역 시국선언 관련 보도> 서울은 맞불시위가 이슈가 되고 있고 지역의 움직임이 궁금했는데 관련된 보도를 해줘서 잘 봤음.	회의록 첨부	○		
보도	<날씨 관련 보도> 뉴스에 날씨 코너가 없어서 아쉬움. 날씨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 기간을 정해 날씨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노동자 사망 사건 보도> 정림동 노동자사망 사건 관련해서 후속보도를 두 차례 진행했는데 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첨부	○		
보도	<뉴스 시작 전 앵커 장면> 뉴스 생방송 시작 전에 앵커가 입을 푸는 장면까지 송출되던데 주의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쇼츠와 릴스 재생산> <시시각각>의 특징적인 부분을 집약적으로 재생산해서 릴스를 통해 젊은층까지 전달 하는게 좋았음	회의록 첨부	○		
교양	<건강플러스 세트> 세트가 연두색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 눈이 피로한 것 같음. 세트에 다른색을 섞어도 좋을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교양	<래일 이즈 백 관련> 대전역이 전소된 사진을 찍은 날짜가 1950년 7월 19일이 아닌 1951년 6월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왜곡될 수 있어서 지적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인생내켓> 독립서점 이야기 좋았음. 도전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회의록 첨부	○		
기타	<영상구입 문의> 80년대 영상 구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한 건지? 자료 보관기간을 공지하면 어떤지?	회의록 첨부	○		

## 2024년 1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손병우 위원장,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 회의록 전문

#### 이은표 경영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쁜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1월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 9건인데요. 홈페이지 수정 요청 2건, 뉴스 자막 불만 1건, 사거리 명칭 사용 관련 1건, 기타 5건이었습니다. 자세한 점은 배부한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 정성일 위원

80년대 영상 구입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린 거죠?

#### 이은표 경영국장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 장래숙 위원

이런 자료 보관에 대해서 보관 기간 등을 공지하면 어떨까요?

#### 이은표 경영국장

기간에 따라서 자료 보관을 특정하기 어렵고요. 문의도 많지 않아서 따로 공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의시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11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 진종재 사장

안녕하세요. 따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잘 반영해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방송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표 경영국장

손병우 위원장님 인사말씀 후 회의 진행해 주시죠.

#### 손병우 위원장

60주년을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11월을 채우고,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특집 편성된 좋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과 의견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래숙 위원님부터 시작해주시죠.

#### 장래숙 위원

윤지석 위원님이 뽑아 오신 뉴스 자료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청조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 받은 내용이 우리 지역 사회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 김지훈 보도국장

대전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기에 보도했습니다.

#### 장래숙 위원

그렇다면 대전에서 벌인 사기에 대해서도 보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천변고속화도로 뉴스도 잘 봤는데요. 인터뷰가 대전 공무원이더라고요. 저는 대안에 대해서 인터뷰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재무회계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2천만 원 이상의 보수 공사 시행 시 대전시와 사전 협의하여 실행할 거라는 두 마디 후 끝나더라고요. 대안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뷰 할 때 시민들이 궁금해 할 것들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플러스>인데요. 세트가 연두색 한 가지 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기에 눈이 피로한 것 같습니다. 세트에 다른 색을 섞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시청자가 궁금할만한 것을 질문 받아서 답변하거나 회복 사례를 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내컷>에 이번에 동물매개치료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점이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치료사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 동물은 인증을 받아서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인됐는지 모르겠고요. 치료사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청소년 등 정서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에게 동물은 좋은 매개거든요.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내용을 더 담았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김영진 위원

먼저 보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장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변고속화도로 보도 관련 해서 후속보도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이슈의 핵심은 2004년도에 왜 그런 의사결정이 이뤄졌는가를 따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의 내용이나 대전시 답변은 운영사가 수익성 있게 운영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애초에 타당성 평가라든지 민자 사업 수익보장에 대해서 과도했던 의사결정 때문에 생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후속적으로 보도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지자체가 민자 사업을 할 때 건설사나 운영사에게 수익 보장을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자체가 이렇게 무리한 수익 보장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현재와 연결된 이슈까지 함께 시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토목 사업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이 막 이뤄지는 것은 결정했을 때와 실제 문제됐을 때의 갭 차이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 결정을 한 당시 시장과 주요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후속보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기견 입양 캠페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캠페인들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MBC가 단독으로 다뤘던 것 중에서 대전 교도소 재소자 폭행 사건 있잖아요. 보도 자체는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브 댓글 반응을 보니까 재소자가 맞을 짓을 했을 거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는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재소자나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소자나 범죄자에 대한 불만들이 인권 문제에서도 같이 왜곡돼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인권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할지 후속보도나 시사각각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사 60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있어요. 대전MBC 창사 60주년 이니까 지역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기대했는데, 대전MBC를 가리고 보면 철도 학습자료, 우주 사업 소개 프로그램이라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퀄리티를 떠나서 방향을 지역과 연관성이 떨어지게 만든 게 맞는 건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옹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생각한 지역 방송사의 특집 프로그램과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철도 다큐의 경우에 지난 번 위원회에서 1부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2부는 지역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봤는데요. 뭔가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재 대전의 철도 관련 문제보다 앞으로 철도가 대전을 활성화 하는 데 유망한 사업이라는 홍보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현재 대전이 겪고 있는 서대전역, 신탄진역 등의 원도심 문제가 있고요. 또 대전역 인근 재개발 이슈들도 있어요. 어쨌든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현재 문제는 외면한 채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듯 홍보하는 방향이 되었는지 의아했습니다.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궁금함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윤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윤지석 위원

우리 사회 병리 현상, 갈등 구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일주일 동안의 뉴스를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어요. 전체 78개 중 나쁜 뉴스 24개, 좋은 뉴스 7개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뉴스가 사회를 전달해야 하지만 너무 나쁜 뉴스를 보내기보다는 미담, 좋은 뉴스를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담을 제보 받는 자막을 띄워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의 미담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고정화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박선진 앵커가 갈등을 넘어 공존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지천담 관련해서는 대전MBC가 갈등을 조명하기보다는 충남 지역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나, 피해 보는 사람들을 충분히 보상해줬다는 내용을 내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3자 개입에 의해 갈등만을 조장하는 뉴스보다는 화합하고 공존하는 뉴스를 내보냈으면 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전MBC 유기견 캠페인도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보도 자료에 의한 뉴스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트램 자료 관련해서요. 이장우 시장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꼭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충남 내륙 국가산업단지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 홍성 군수가 꼭 인터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과 주민이 함께 하는 대전MBC면 좋겠습니다.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인 <레일 이즈 백> 2부를 봤는데요. 저는 김영진 위원과 반대로 참 좋게 봤어요. 애니메이션과 흑백 자료화면 등 과거의 대전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도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철도는 양날의 면이 있는데 1부에서는 철도의 친환경적인 측면을 보여주다가 2부에서 대전에만 국한해서 설명하니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철도의 친환경 교통수단 측면도 더 담았으면 좋겠어요. 2부에서 그치지 않고 3부, 4부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역을 부수지 않고 문화공간으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마치 파리 오르세 박

물관처럼요. 다른 시민 분들과 인터뷰해서 이런 점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내컷> 독립서점 이야기 너무 좋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실망한 요즘 시대에 도전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모니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진희 위원님 해주시죠.

이진희 위원

<인생내컷>에 자양동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젊은 청년 이야기를 담았어요. 내용 중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고 싶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이 가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로망일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가치를 생각하며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사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사는 삶. 그렇게 살기는 얼마나 힘들고 부지런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아름답게 봤습니다. 지역과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인생내컷>인 것 같아서 11월도 참 좋았습니다.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에서 대전 문화예술 단지를 설명하면서 무대에 오르거나 1등을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공간과 사람을 설명하고 친해지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60주년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문제, 소외된 문제 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도시 모습에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면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식의 지방정부, 시민, 지역이 함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자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부는 세계의 역사성 안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우주 시대>는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지역을 어필하려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을 위해 노력하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시시각각>은 쌀값 불안정과 관련해서 열심히 봤는데 와 닿는 게 적었습니다. 농촌 쌀값과 관련해서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체감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다채로운 방식으로 주제를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봤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양한 프로그램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미화 위원장님 말씀해주시죠.

김미화 위원

최근 뉴스를 보면 다양한 부분을 고발하거나 좋은 소식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서 경찰 사망사건 후속보도를 계속 해주셨어요. 경찰의 갑질은 인정하지만 경고 조치에 준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유가족이 울분을 터트리는 인터뷰를 보면서 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한 게 맞는지, 오히려 계속 일하는 결과를 보고 가족이 너무 참담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시민들도 어디를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았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후속보도 해주신 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소상공인 폐업 개수를 알려주시면서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서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제시가 좋았습니다. 또 결핵 환자 크리스마스일이 우체국에서 한두 개 정도만 팔렸다는 내용과 굶주린 개 같은 걸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참여도가 떨어지는 심각성을 제시한 측면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윤지석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 부조리, 비리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충남도 수학여행 비리, 대전 관저문예회관 채용비리 의혹, 홍성 요양원 의혹 특히 홀덤펍 308명 송치 보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도박과 학교 폭력 사례를 많이 접하거든요. 학생들이 도박을 실제로 많이 하고, 도박이 학교폭력과 연결되는 심각한 상황을 봤어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반이 20명이면 10명 가까이 도박 어플 깔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대학생들도 연결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보도, 도박 가족의 이야기 등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맞불시위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 궁금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대전MBC에서 대전 지역의 대학교 교수님 시국 선언, 충남대 학생들이 퇴진 운동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보도를 하셨어요. 아직 사람들의 의식이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해주신 것을 잘 봤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이섬교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이섬교 위원

보도국 쇼츠, 릴스 인상 깊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집약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릴스를 통해 재생산해서 지역의 문제를 생동감 있게 젊은 층까지 전달할 수 있는 릴스 정말 좋았습니다.

뉴스 보면서 아쉬웠던 대전MBC 뉴스에서 날씨코너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날씨를 민감하게 보는 사람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라도 날씨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관저문예회관 관장 비리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몰랐던 내용과 진행 상황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생방송 전에 앵커가 입을 푸는 장면까지 송출되던데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정성일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정성일 위원  
그동안 제작된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특히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잘 봤는데요. 저는 어쨌든 대전이 철도와 과학의 도시이기에 주제 선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도 지역적인 의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선정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한화이글스라는 주제는 가벼울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 같고요. 쌀값 불안정 같은 경우는 충남이 농업도이기 때문에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트럼프의 재선 경우는 전국적, 세계적인 이야기인데 지역적인 부분과 잘 결합해서 시기성, 지역성을 둘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인생내컷>의 독립서점 경우에는,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그 곳을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일 이즈 백 2부를 자세히 봤어요. 제가 아는 대전연구회 분들이 많이 출연하셨는데요. 대전이 철도로 발생해오던 역사, 그리고 대전이 철도와 어떻게 연계됐기에 그런 식문화가 생겨났는지 잘 설명한 것 같아요. 타 지역 사람들이 봐도 대전의 칼국수, 빵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철도가 대륙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끊겨 있는 그런 한계 부분에 대해서 조명될까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철도로 발전된 대전과 유사한 도야마라는 도시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초점을 잡아서 담았더라고요. 그를 통해 미래를 가늠하고 방향을 고민하는 부분이 신선했습니다.

다만 15분경에 한국전쟁 중에 대전역 전소 장면이 나오거든요. 1950년 7월 19일 대전역 전소라는 자막과 함께 폐허가 된 대전 시가지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은 라이프지 조 셔첼이라는

사람이 1951년 6월에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그 사진을 연구해서 아는데요. 대전역은 7월 19일에 전소되지 않았거든요. 대전 전투는 7월 21일까지 이어졌고 후퇴하던 미군이 대전역 인근 열차 한 대를 폭격했지만 그 때도 대전역은 전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9월 28일에 대전 수복이 되는데 9월 15일에 미군이 대전에 대대적으로 폭격을 하거든요. B29폭격기 9대가 90톤의 폭탄을 투하하는데 그때 대전이 평평해진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7월 19일로 나와서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역사가 왜곡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대전 전투랑 이어서 배치가 되면서 대전을 황폐화 시킨 주제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적군 아군을 떠나서 역사적 기록은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 MBC에서 나오는 자료는 신빙성 있게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노동자 사망소식이 있었죠. 정림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MBC도 바로 보도를 하고 후속 보도를 두 차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첫 번째 보도를 보면서 신호수가 업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망을 했고, 사고 난 후 2시간 뒤 119가 온 게 의아했거든요.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진상규명이 되고 억울한 죽음의 한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에서 고민해달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10월 30일에는 무인중장비 관련 보도가 있었잖아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술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위험하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해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이대로의 사회 구조면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에서 해방이 아니라 배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사람과 공존을 해야 하는데 산업혁명처럼 기계 때문에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래의 기술 발전이 이런 철학적 고민이 담겼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과학도시 대전답게 과학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철학적 고민을 던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11월 18일 지천댐 관련 뉴스가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충남도가 충남대로 오타가 돼 있어서 그 부분 빠르게 확인해서 수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용들이 1년 동안 쌓여온 내용들이 압축돼서 훌륭한 분석과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운 우주시대>를 보고 왔습니다. 대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굳이 대전을 나타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로 시선을 돌리고 대전MBC에서 끌어

안아 정리를 해주는 시도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추가적인 내용들을 덧붙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명하게 줄인다는 것과 복잡한 세부사항을 삭제하는 게 동의어는 아닌데 이걸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역사적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대전MBC 프로그램을 통해 덮어 씌워지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지석 위원님께서 나쁜뉴스, 보통뉴스, 좋은뉴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국에 나쁜 뉴스를 분석한 3권의 책이 있는데 1권이 Bad news, 2권이 More Bad news, 3권이 Really Bad news 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뉴스를 분석해 본적이 있는데요.

아마 윤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쁜 뉴스가 아니라 네거티브한 뉴스를 보도하는 비중이 높고 훈훈한 뉴스를 보도하는 비중이 적다는 이야기 같아요. 이는 대전MBC에 나쁜 뉴스가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겠네요. 김미화 위원님의 취약계층에 뉴스가 계속 시선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지훈 보도국장

좋은 지적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 관련 민자 사업 문제는 서울의 우면산 터널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32년까지가 운영 기간이고 그 이후에 남은 부채를 대전시가 채무보조를 약 770억 정도 된다는데 그 부분에 시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점에 관심을 갖고 뉴스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등 토론프로그램에서 의제 발제해서 다루겠습니다.

유기견 입양 캠페인은, 대전시에서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2000마리라고 하는데 유기견들을 소개시켜주고 지역사회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차원으로 릴스로 4-5초 정도 만든 겁니다. 반응이 좋으면 별도 콘텐츠로 채널을 만드는 등 활성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대전 교도소 재소자 폭행 사건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고 우리의 인권 감수성 수준이 이정도구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피해 재소자가 어떤 혐의로 얼마나 복역하는지 구체적으로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범죄자도 아니고 잘못은 했겠지만 교도관이 정의롭다는 식으로 표현되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마침 오늘 폭행해 가담한 교도관 5명이 검찰로 송치가 됐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한 달 동안 교도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공하지 않아서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나가겠다는 내용을 탐으로 보도할 예정이고 후속 보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지석 위원님이 뉴스 자세하게 분석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보도국에 공유하겠습니다. 미담도 체계화 돼서 보도될 수 있는 코너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전 세종 충남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의 2025년 모금 운동이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뉴스부터 로컬뉴스시간에 대전사랑나눔, 충남사랑나눔, 세종사랑나눔 QR 자막을 상시 띄워서 바로 기부로 연결되게 하려고 합니다. 뉴스가 끝나도 시청자들이 나눔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효과가 아닐까 싶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청소년 도박 문제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건팀에 전달하겠습니다.

시국 선언도 지역에서 대전MBC만 리포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과 세종에서 시국 선언이 있었고 오늘 뉴스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꾸준히 내용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점교 위원님 릴스 좋다고 하셨는데 <시시각각>연출자가 직접 품을 팔아서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서 1분 정도 만들고 있는데 힘든 작업이지만 직접해보겠다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흘러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겠지만 이슈만 잡아서 해 주는게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상 캐스터 문제는 보도국의 큰 고민입니다. 현재는 날씨티커라고 해서 하단 자막에 지역별로 날씨 이모티콘과 기온 정도를 표출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상캐스터 도입 등을 점진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정림동 노동자 사망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첫날 취재당시부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지 후속보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세혁 편성국장

장래숙 위원님께서 <건강플러스> 세트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트의 장점은 하얀색 글자 CG가 더 잘 보인다는데요. 단점으로는 계속보기에는 단색이어서 시각적 피로가 있습니다. 세트를 1년마다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2~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요. 다음에는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동물매개치료사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송은 MBC충북에서 제작된 걸로 압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동물을 매개로 한 치료가 효과가 높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박정희씨 개인의 삶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어서 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한 내용은 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철도 특집 <레일 이즈 백>과 라디오 특집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80% 제작 지원금을 받아서 만든 건데요. 철도 관련 단체에서 협찬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작했구요. 철도와 관련된 어두운 그림자 등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작자의 의도는 철도가 가져온 대전의 긍정적 변화와 앞으로 소외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공간적 매개로 가자는 밝은 측면을 다룬 것 같습니다.

다만, 정성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15분경에 폐허가 된 사진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조사해서 오류가 있다면 정확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레일 이즈 백>이 12월 셋째 주, 넷째 주 목요일 9시에 재방송 예정인데요. 재방송 때는 반영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내컷> 독립서점 편 임다운 사장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내컷>은 세대간의 통합과 지역의 희망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섬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뉴스 생방송 전 준비 모습 관련해서는 방금 확인해봤는데요. 프리샷이 잡힐 때 제가 입을 푸는 모습이 담겼나 봐요.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9월에 라디오 공개 방송 특집을 했었어요. 12월에는 즐거운 오후 2시 청취자들을 모시고 박남정, 김혜윤, 설하윤씨 모셔서 공개 방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석 위원  
대전역 폐허화 얘기를 할 때 미군이 대전시를 어떤 의도로 폭격했는지를 같이 담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게 좋은 건지 고민하면서 자료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올해는 다음 달 한 달 남았는데요. 12월 24일 화요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이고 31일은 마지막 날이고 한데... 다음 달 시청자위원회는 60주년을 뜻 깊게 마무리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알찬 토론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어서 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도 저희 방송에 대해서 폭넓은 평가와 인식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속제가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꼼꼼하게 뉴스 시간, 유튜브 표현 오기, 다큐의 역사적 사실 부분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의견을 듣고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서 따뜻한 방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서 저희 방송이 공동체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따뜻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마지막으로 12월 회의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데요. 12월 31일은 연말이고, 24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그래서 23일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  
그럼 12월 회의는 23일에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